



##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2016.11.07 | 김영석\_전국건설기업노조 정책국 수석부국장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정치권력을 민주화시켜 본들,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조직체들의 권력이 사유화되어 이해당사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주의적 원리들이 작동할 틈이 없다면, 이는 다시 정치민주화까지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 지금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그런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다. 기업내부의 독단적 지배구조는 부당한 정치권력이나 금융권력에 쉽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독단적인 지배구조는 부당한 자본권력이나 개인에게 쉽게 농단당하는 것이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 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새사연 소모임 <빛쟁이 포럼>의 참여자인 김영석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견기업 삼부토건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른 본 보고서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가 2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삼부토건이라는 중견기업은 2011년경에 대주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1차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갔으나, 결국 4여년간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2015년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서 기업회생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경험해 온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모순들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기업과 금융의 구조적 모순과 비민주적 행태들을 되짚고자 쓰여졌다. 현재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의 기업과 각 경제주체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나아가서 본 글이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이나 기업회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에 한 조각의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보고서는 2016년 10월 중순경에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주최한 소모임인 <빛쟁이포럼>에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쓴 것이다.

‘경제민주화’ 의 진짜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헌법은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자유와 민주적 질서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헌법 제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현해 나가야할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실상은 재벌 대기업과 지배주주로의 부와 권력의 심각한 편중현상으로 인해 각 경제주체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조정 단계에서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 불공정, 비효율성으로 인한 폐단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본과 금융권력 역시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시장자율이라는 허울뿐인 미명아래 금융기관의 단기적 이익 챙기기 횡포를 수수방관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적 현실을 개선하고자,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각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 지금까지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문제 또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성 문제에만 한정하여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 해소, 지배주주의 책임성 강화, 소액주주권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시장 횡포에 대한 외부적 통제수단을 기초로 한 개혁과제만을 논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우리 기업체들의 현실은 기업내부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재벌 기업주의 황제적 지배권력과 비민주적 기업경영지배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약탈식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왜곡된 계급 계층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개선되는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자본과 금융권력 또한 이러한 야만적 약탈경제 구조에 편승하여 지배주주 등 극히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함으로써 시장권력에서 소외된 종업원과 소비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은 더욱 더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 지배주주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이 불러온 ‘자유민주주의의 마비’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의 정부주도 경제발전과정에서 특혜성 금융과 제도적 지원으로

승장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성장한 재벌총수 지배하의 대기업은 그 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 금융적 수단, 정경유착 등을 통해 외부적 통제와 견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정을 통해 정부의 권위적 강권통제가 약화되고 시장의 자본권력이 더 큰 자유로움을 얻게 됨으로써 총수개인의 기업경영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견제할 수단 또한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이 자유와 자율이라는 교묘한 자유방임적 사술에 현혹됨으로써 재벌총수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은 한층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구조 또한 기업 활동의 무한한 자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유로 지배주주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독단적 황제식 오너경영과 세습경영의 폐해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사회 경제적 폐해들은 다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업의 현실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기업경영에 대한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경제의 가장 큰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사유화한다. 이들이 특정 지배계층의 재산축적과 상속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헌법 전문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기회가 보장되는데는커녕, 계층 계급간의 조화는 파괴되고 적정한 소득분배는 현실로부터 점점 괴리되고 있다. 조금만 더 엄밀히 생각해 보면 시장에 공개된 대기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대한 지배적 권력은 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주주, 경영임원,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기업의 안정적 활동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의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길이고,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대기업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지배하는 1인 기업주의 독점적 권력에 장악되었다. 이 때문에 기업경영은 지배대주주와 그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기업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의 권력을 전횡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서로간의 협력은 멀어지고 이로 인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주주의 불투명한 독단경영의 지속으로 부실불법경영의 가능성이 많아짐으로써 기업은 결국 파탄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60년 넘게 흑자였던 중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

1948년 건립된 이래 개발경제시대를 거쳐 60여년간 국내외의 공공토목공사를 주력사업으로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통해 기업자산을 축적해 온 삼부토건은 자회사인 남우관광(르네상스호텔), 삼부건설공업 등과 함께 전체 매출액은 1조원, 전체 상시종업원수는 1,200여명에 달하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중견그룹으로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헌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자산을 축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내부의 현실은 개발독재시대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배주주 가족들이 주주총회의 전권을 장악하고, 이사회 이사 및 감사, 집행임원 등을 모조리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업운영은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황제식 혈연경영으로 일관되어 기업부실화의 뇌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금융과 부동산 거품시대를 지나오면서 지배주주 일가들은 마침 2세에서 3세로의 경영권 세습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6년부터 금융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본격적으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투자를 2세와 3세들이 경쟁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사업부서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조직에 의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비선라인을 통해 2세와 3세 혈족들은 무모한 PF대출보증과 시공참여를 결정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실제 2007년 이후 현인마을개발사업, 유러피안리조트개발사업, 카자흐스탄 주거복합단지, 타니골프장 개발사업 등 삼부토건 경영진이 참여를 결정하여 지급보증한 PF대출원금은 약 7,000억원에 이르고, 2015년 회생절차신청 전까지 이에 대해 지급한 고율의 이자가 3,000억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PF사업이 애초부터 진행이 불가능했거나 가능했더라도 이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회사의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2016년 현재까지 실제 회사가 회수한 금액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당시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또한 대출사업에 대한 실질적 사업성 검토나 심사 없이 우량자산을 보유한 삼부토건 이사회의 PF사업 채무보증 결정만으로 시행사에 부당한 대출을 해줌으로써 부실사업결정과 관련 없는 다른 기업구성원들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생산해 내는데 일조했다.

2011년 4월 현인마을사업과 유러피안리조트사업 등 사업시행사들에 대한 PF보증채무의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비로소 삼부토건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기업부실화를 외부에 명확히 드러내게 된다. 이 당시 삼부토건은 5,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는 기업을 제 때 회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시장의 갑작스런 혼란야기를 기피하는 정치권력과 부실사업에 대한 무리한 대출강행으로 수천억 원의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은 금융기관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삼부토건 부실경영진을 회유하여 르네상스호텔부지를 담보로 회수가 불확실한 회생채권을 부동산담보부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철회시키게 된다.

이 때 삼부토건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고 2011년 7월 대주단과 자율협약(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부실화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보나, 현재 드러난 결과를 통해 보나 자



력 회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지배주주 일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그들만을 위한 부질없는 경영권을 연장할 수 있었고, 대주단은 7,500억원의 협조유자를 통해 일부 부실채권은 즉시 회수하고, 나머지 남은 채권은 삼부토건의 우량자산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횡재를 누렸다. 더구나 대주단 은행들이 협조유자 대상인 기업에 유동성을 전혀 남겨놓지 않고 2년간의 선이자 1,000억원까지 떼어 놓았던 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개선에는 애초부터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지배주주일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대부분 예측했던 대로 자율협약기간인 2011년 7월부터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2015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삼부토건의 기업부실화는 점점 가중되어만 갔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일가들은 점입가경으로 편을 갈라 경영권 싸움까지 더 크게 벌였다. 한 쪽에서는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이 빼앗기면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황금낙하산 조항까지 넣으려 시도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습경영 경쟁을 벌이던 대주주 일가들과 그 하수인들의 부실PF사업에 대한 배임횡령혐의를 검찰에 서로 상대방 측을 맞고소함으로써 한쪽은 배임수죄로 2년의 실형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 경영진은 전관예우 변호사인 홍만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검찰조사를 결국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무능한 지배주주 3세들은 자신들의 경영자질 부족을 감추고 회사 내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의 과시하기 위해 회사 조직 이외에 별도의 비선라인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갑작스런 기업부실화로 큰 위기에 직면하여 자율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동양그룹 불법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아인에셋투자자문>에 사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의 행각은 결코 부실화된 기업의 기업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지배주주의 부실경영권 보전과 자산매각에 따른 이익들의 사유화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이었다.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회사에 부담만 지우는 <껌기식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황금낙하산제도> 도입 시도, 부당한 <유상증자> 실시 시도 등 대부분의 사적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이 그러했다. 르네상스호텔 등 자회사 및 부동산 매각 또한 이 때문에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정상화 여력도 3세 후계자를 포함한 비선실세의 기업권력 농단으로 끝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정상화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었던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나아가서 자회사인 남우관광 소유의 르네상스호텔 부지를 자율협약 체결과정에서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멸절했던 르네상스호텔이라는 회사는 그 근거기반인 토지가 사라져 갑작스런 재개발 위기에 대책 없이 몰리게 되었고, 최근 대주단은 신탁된 부지를 투기자본에 헐값에 공매 처분함으로써 500여명의 호텔종업원들은 일자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자율협약 기간 동안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이유로 일절 삼부토건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고, 매년 800억원의 이자만 챙



겨 갔기 때문에, 회사는 경영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담보로 맡기며 이자를 갚는데 급급했으며, 회사의 유동성 고갈로 공사기성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협력업체와 상시적 임금체불 상태에 놓인 종업원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어 갔다.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 확보 등으로 더 이상 자율협약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어진 채권단이 부실경영진이 요구한 자율협약 연장을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자, 회사는 2015년 8월말에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종업원의 체불임금이 한 때 6개월 치인 200억원에 다다르기도 했으며, 공공 공사현장은 공사기성금이 대부분 가압류되어 거의 가동중단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율협약체결 초기부터 서너 차례 협약이 연장되는 동안 노동조합은 채권단의 탐욕과 기업정상화에 대한 무관심, 독점적 기업지배구조, 세습경영의 폐단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자율협약을 폐기> · <무능경영진 퇴진> · <대주단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두 차례의 장기파업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채권단은 노동조합을 ‘기업경영 문제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자’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를 방해하는 하나의 걸림돌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오직 회사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설정으로 약정이자를 챙겨가는 것에만 몰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의 금융감독기관 또한 노동조합의 수십 차례에 걸친 부실대출에 대한 진정 및 집회시위를 통한 정부의 통제 및 개입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장자율에 내맡길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만 취했다.

그림1. 삼부토건 노조의 금융위원회 앞 시위 현장



슬장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요즘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2016년 실적관련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그들이 담보로 잡아 놓았던 르네상스호텔 등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협조용자의 부실화로 쌓아 놓았던 총당금이 수백억 원씩 환입됨으로써 실제 큰 이득을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무책임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억지라고 하며 자신들 또한 삼부토건의 부실화의 큰 피해자라고 강변하던 태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에 앞서 채권금융기관은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주식으로 전환된 회생채권이 시장에 재상장 되자 이를 재빠르게 시장에서 팔아치워, 자율협약 기간 동안 가져간 3,000억원 이상의 이자 이외에도 원금의 상당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은 망해도 비선실세들의 농단은 그대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2015년 8월말 기업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기 전까지 자율협약 4년 동안 지배주주의 부실한 무능한 경영권을 연명해 주는 대가로 약탈적 채권단은 3,000억원의 추가이자를 챙겨 갔다. 협조용자 원금 및 회생채권 또한 담보부동산을 공매처리하거나 법원을 통해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받아 주식시장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지배주주들은 부실화된 기업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고통을 모두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은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로 인해 삼부토건의 기업구조조정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안게 되었다. 대형 토목공사에서 60년 넘게 축적한 시공경험과 뛰어난 기술 인력을 지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된 기업부실화로 인한 종업원들의 사기저하, 신용불량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 공사현장의 감소, 우발 공익채권의 발생가능성 등으로 자력회생이나 기업매각을 통한 기업정상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아래에서 실질적인 기업회생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법원 파산부는 기업회생법에 의해 기업통제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았지만, 기존 부실 임원진을 그대로 회생회사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법원의 안일한 구조조정 정책과 회사 측 기존 임원들의 경영능력부족, 책임회피, 구사주일가의 잔재 등으로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이 없이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수주부진과 시공현장의 감소, 기업파탄 우려에 따른 핵심 기술 인력의 유출 등으로 회사회생을 위한 자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 또 법원의 관련재판부는 노동조합의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는 탄원서 등의 서면을 통한 간접적 접촉수단만을 허락함으로써 종업원들의 긴요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요구와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이해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부실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약탈적 금융자본과 비선실세들의 농단과 전횡을 무책임하게 방관하여 조기 기업정상화 기회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날려버린 기존의 등기임원들에게 기업회생전략을 내맡기고 있어 구태식 경영구조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보호 관점에서만 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회생의 실질적 주체이자 핵심 이해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의견반영은 소홀히 취급되어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기여를 고려한 기업회생전략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 사이

지금까지 언급한 한 기업의 부실화와 기업구조조정 사례는 필자가 특정기업에서 경험한 사례이지만, 대부분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거의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서 누구나 쉽게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보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개별기업집단이나 산업과 금융적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시장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협의체구성과 대안을 제안하더라도, 시장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집단은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급계층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문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 강자들의 자율성만을 동어 반복적으로 강변하며 단기적 성과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조직체들에게 민주적 운영원리의 뿌리를 박아 나가야 한다. 그런 뿌리들이 칙녕쿨처럼 얽혀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제도로서 마침내 얽히고설키게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현실과 동떨어진 가치로 간주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미래 위에 집을 짓거나 공중에다 누각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쉽게 허물어지거나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것이 되고 만다.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정치권력을 민주화시켜 본들,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조직체들의 권력이 사유화되어 이해당사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주의적 원리들이 작동할 틈이 없다면, 이는 다시 정치 민주화까지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 지금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그런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다. 혹자들은 한 개인의 주술에 의해 통치체계가 무너졌다고 여기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의 허약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우선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내부의 독단적 지배구조는 부당한 정치권력이나 금융권력에 쉽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독단적인 지배구조는 부당한 자본권력이나 개인에게 쉽게 농단당하는 것이다. 결국 자본과 부패한 권력의 악순환에 민주주의는 압사당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나 기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슬장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기업권력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등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1월 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 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9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